

경인방송

2018-12-09 00:00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 연결...통합 관리체계 구축해야” < 경기연구원 >

[구대서 기자]



파주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모습 <사진= 경인방송 DB>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평화누리길, 의주길, 주상절리길 등 3대 주요 걷는 길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주요 걷는 길을 연결하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슈진단보고서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대 걷는 길 관리·운영 주체는 경기도 DMZ정책팀, 문화유산활용팀, 접경 지역개발팀 등으로 분리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을 포함해 경기도 도보길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관련 정보를 습득하거나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평화누리길과 주상절리길은 내부에 단절된 구간이 있으며, 3개의 주요 걷는 길 간의 연계성이 부족해 걷는 길의 연결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식 연구위원은 “3개의 걷는 길이 연결되고 평화누리길이 강원도 이후 구간까지 연장되면, 한반도를 동서로 관통하는 최초의 둘레길이 완성된다”며 “평화누리길 트레킹 코스와 연계하는 의주길, 주상절리길을 활용하는 관광코스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북부 3대 주요 걷는 길 중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인 김포~고양~파주~연천을 잇는 12개 코스 189km에 달합니다.

‘의주길’은 한양과 의주를 잇는 경기도 옛길 중의 하나로 고양~파주에 걸쳐 있는 5개 코스 52.1km구간이며, ‘주상절리길’은 한탄강 수변을 따라 조성된 생태탐방로로 연천과 파주에 조성된 모두 8개 코스 47.9km의 길입니다.

“경기 북부 걷는 길 연결 관광코스로 개발해야”

평화누리·의주·주상절리길 활성화 경기연구원 ‘걷는길...’ 제안 보고서

경기 북부의 평화누리길·의주길·주상절리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걷는 길을 연결하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도는 경기 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평화누리길·의주길·주상절리길 등 3대 주요 걷는 길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인 김포~고양~파주~연천을 잇는 12개 코스 189km에 달하는 길이

고, 의주길은 한양과 의주를 잇는 경기도 옛길 중의 하나로 고양~파주에 걸쳐 있는 5개 코스 52.1km의 길이다. 또 주상절리길은 한탄강 수변을 따라 조성된 생태탐방로로 연천과 파주에 조성된 총 8개 코스 47.9km의 길이다.

하지만 현재 걷는 길을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경기도 DMZ정책팀, 문화유산활용팀, 접경지역개발팀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현재 경기 북부의 주요 걷는 길을 포함해 경기도 도보길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관련 정보를 습득하거나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3개의 걷는 길이 연결되고 평화누리길이 강원도 이후 구간까지 연장되면, 한반도를 동서로 관통하는 최초의 둘레길이 완성된다”며 “평화누리길 트레킹 코스와 연계하는 의주길, 주상절리길을 활용하는 관광코스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의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경기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민간기업 협력 및 후원을 활용한 도보관광 활성화 ▲물리적 환경 개선 및 통합 브랜딩·홍보 ▲평화로·통일로 등 주요 간선도로 개선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경기일보

“평화누리·의주·주상절리길 연결 경기북부 대표 관광코스 개발을”

경기연구원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한반도 동서연결 둘레길 만들자”

평화누리길, 의주길, 주상절리길 등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걷는 길을 연결하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 대표적인 관광테마와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9일 경기도에서 현재 지정 및 운영하고 있는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들의 조성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한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도는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평화누리길, 의주길, 주상절리길 등 3대 주요 걷는 길을 지정, 운영 중이다.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역인 김포~고양~파주~연천을 잇는 12개 코스 189km에 달하는 길이로, 의주길은 한양과 의주를 잇는 경기도 옛길 중의 하나로 고양

~파주에 걸쳐 있는 5개 코스 52.1km의 길이다. 또 주상절리길은 한탄강 수변을 따라 조성된 생태탐방로로 연천과 파주에 조성된 총 8개 코스 47.9km의 길이다.

그러나 현재 걷는 길을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경기도 DMZ정책팀, 문화유산활용팀, 접경지역개발팀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현재 경기북부의 주요 걷는 길을 포함해 경기도 도보길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관련 정보를 습득하거나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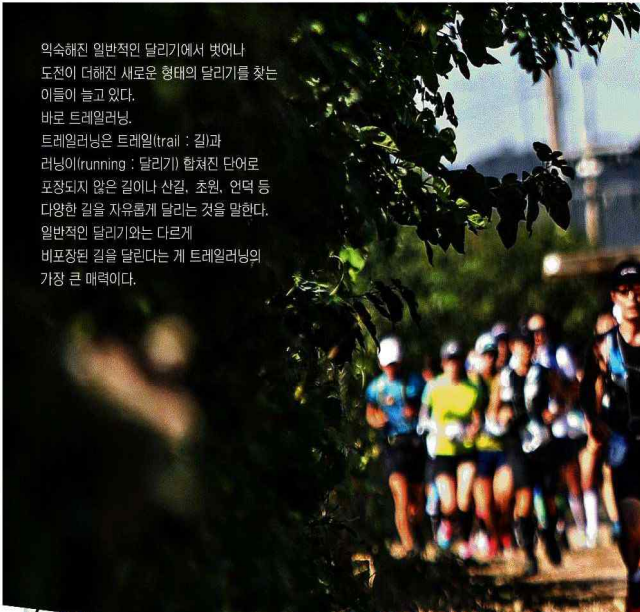
또 평화누리길과 주상절리길은 내부에 단절된 구간이 있으며, 3개의 주요 걷는 길 간의 연계성이 부족해 걷는 길의 연결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강식 연구위원은 “3개의 걷는 길이 연결되고 평화누리길이 강원도 이후 구간까지 연장되면, 한반도를 동

서로 관통하는 최초의 둘레길이 완성된다”며 “평화누리길 트레킹 코스와 연계하는 의주길, 주상절리길을 활용하는 관광코스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경쟁적으로 다수의 ‘걷는 길’을 조성했으나, 다수의 길 사업이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기도 걷는 길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조례와 종합계획을 제정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의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경기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민간기업 협력 및 후원을 활용한 도보관광 활성화 ▲물리적 환경 개선 및 통합 브랜딩·홍보 ▲평화로, 통일로 등 주요 간선도로 개선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선호기자

새로운 길 달리고 싶다면? DMZ 철책 따라 100km 도전!



익숙해진 일반적인 달리기에서 벗어나 도전이 더해진 새로운 형태의 달리기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바로 트레일러닝. 트레일러닝은 트레일(trail : 길)과 러닝(running : 달리기) 합쳐진 단어로 포장되지 않은 길이나 산길, 초원, 언덕 등 다양한 길을 자유롭게 달리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달리기와는 다르게 비포장된 길을 달린다는 게 트레일러닝의 가장 큰 매력이다.



트레일러닝..달리기와는 다른 매력 속으로

달리기를 하며 지루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달리기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더욱이 몸의 같은 곳을 자극하는 달리기와는 달리, 트레일러닝은 다양한 형태의 길에 맞추다보니 코어 등 전신의 근육을 다양하게 자극한다. 다양한 근육의 자극과 부하를 분산시켜 부상을 예방하기도 한다.

트레일러닝이 주로 이뤄지는 곳은 산과 숲.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의 60%가 넘는 곳이 산지여서 트레일러닝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셈이다. 이로 인해 트레일러닝을 하면서 산림욕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산과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와 신선한 공기 등 뿐만 아니라 자연이 주는 경관, 동물들이 내는 소리를 듣고있으면 복잡한 도시를 사는 현대인들은 힐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트레일러닝의 또 다른 매력은 내가 가는 길이 곧 코스라 된다 것이다. 정해진 트랙을 달리기나, 러닝머신위에서 뛰는 반복적인 동작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아 계속해서 달리는 것. 그것이 트레일러닝만이 가진 매력이다.

새로운 길을 찾으면 뛰다보면 자연스럽게 내 몸이 최적화된 코스를 만들고, 그에 맞춰 페이스조절을 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

트레일러닝을 시작하기 위해선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운동화와 운동복, 그리고 가까운 뒷산을 찾아 완전히 연습하면 된다. 안정적인 트레일러닝화만 있으면 어느정도 준비는 끝난 것이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반복적인 러닝을 즐기다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발전된 코스 트레일러닝을 즐기고 싶어진다. 그때 한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트레일러닝대회로 눈을 돌려 대회를 준비하는 것도 트레일러닝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산길·초원·언덕 등 비포장된 길 달리는 트레일러닝 코어 등 전신의 근육 다양하게 자극... 심혈관 효과까지

평화누리길 뛰는 'DMZ 트레일러닝' 대회 눈길 올해 김포-연천-파주 2박3일 '스테이지방식' 첫 선 51km·14km·20km·9km 등 당일 레이스도 다양

자연과 하나되는 'DMZ 트레일러닝'

트레일러닝을 하는 이들과 교류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싶은 러너들에게 'DMZ 트레일러닝' 대회가 제격이다.

자연환경을 즐기며 러닝을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평화와 생명, 소통과 화해의 의미가 담긴 DMZ 일원 트레일 레이스로 DMZ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트레일러닝 대회다.

코스는 12코스로 나누어진 평화누리길 중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농촌길과 고대산 등의 산악코스, 한국전쟁과 분단의 상흔이 남아있는 DMZ 일원 일부 구간이 포함돼 있다.

물론 자신의 체력에 따라, 일정에 따라 다양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스테이지방식의 100km 2박 3일코스, 당일레이스로 진행되는 51km, 14km, 20km, 9km 등의 코스로 나뉘어져 있다.

스테이지방식은 올해 열린 DMZ 트레일러닝 대회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첫째날 김포-연하강 철책길 32km 구간을, 둘째날 연천-고대산 및 일대 산악



지역 51km 구간을, 대회 마지막 날 파주 임진각 DMZ 및 평화누리길 20km 구간을 뛰었다.

평화누리길 길표 1, 2코스 및 문수산 일대를 뛰는 첫번째 구간은 상승고도 890m, 하강고도 770m, 최고고도 376m로 이루어져 있다. 코스 중 2곳에 높은 체크포인트 지점을 지나 제한시간 7시간 내에 완주를 해야 한다.

두번째 코스는 연천 고대산 및 일대 산악지역을 51km 뛰는 순환코스다. 상승고도 1천830m, 하강고도 1천780m, 최저고도 140m, 최고고도 830m의 코스로 최장거리 코스이자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은 난코스이기도 하다. 3곳의 체크포인트를 지나 11시간 내에 완주해야하는 이 코스에선 체력의 분배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마지막 날, 파주 임진각지역 DMZ 및 평화누리길 8코스 20km를 달린다. 상승고도 141m, 하강고도 138m, 최저고도 20m, 최고고도 100m의 코스로 비교적 순탄한 코스로 보이지만 이미 이틀간 많은 체력을 소모한 참가자들은 이 코스도 그리 쉽지 않는 평이다. 제한시간 3시간 30분 이내에 체크포인트 한 곳을 찍고 레이스의 종결지인 평화의 종각으로 들어오면 전체 레이스는 종료된다.

스테이지 레이스 100km를 완주하면 ITRA 포인트 4점을 받을 수 있다.

ITRA(International Trailrunning Association) 포인트란 UTMB(Ultra Trail Montblanc)를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점수다. UTMB 코스는 일반적인 트레일러닝 코스보다 훨씬 산악지대를 뛰는 것으로 이러한 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이들은 ITRA 포인트를 꼭 받을 필요는 없다.

김포 14km 코스는 대명령에서 출발해 원대나무에 도착하는 하루짜리 코스다.

연천 51km 코스는 고대산 및 일대 산악지역을 뛰는 하루 코스이다. 완주 시 ITRA 포인트 3점을 받을 수 있다.

파주 임진각에서는 DMZ 및 평화누리길 8코스 20km, 9km를 달리는 당일 코스가 있다. 각 3시간 30분, 3시간 내에 들어오는 코스이다.

DMZ 트레일러닝 대회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코스 개발과 다채로운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으니 트레일러닝에 관심이 생긴 이들은 내년에 개최될 DMZ 트레일러닝 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새로운 트레일러닝을 즐기는 방법이 된다. /임하연기자 h113@

“북부 주요 걷는 길 연결해 관광코스 개발을”

● 경기연구원 활성화제언 보고서

경기북부 평화누리길과 의주길, 주상절리길 등 북부지역 주요 걷는 길을 연결하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9일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기했다.

도는 현재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DMZ 접경지역인 김포에서 연천을 잇는 12개 코스 189km의 평화누리길과 고양~파주에 걸쳐 있는 5개 코스 52km의 의주길, 한탄강 수변을 따라 조성된 8개 코스 47.9km의 주상절리길을 3대 주요 걷는 길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운영 주체는 경기도 DMZ정책팀, 문화유산활용팀, 접경지역개발팀 등으로 나뉘어 있어 경기연

구원은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3개 주요 걷는 길이 연결되고 강원도 이후 구간까지 연장되면 한반도를 동서로 관통하는 최초의 둘레길이 완성되며 이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주요 걷는 길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도 걷는 길 조

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경기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민간기업 협력 및 후원을 활용한 도보관광 활성화 ▲물리적 환경 개선 및 통합 브랜딩·홍보 ▲평화로, 통일로 등 주요 간선도로 개선사업 추진 등을 제언했다.

강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걷는 길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조례와 종합계획을 제정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래 기자 jkomet@incheonilbo.com